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XI
YOU
JI

오승은 저
안익호 역

2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여진야나 전
안의야나 전

2

조선민속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西游记. 2: 朝鲜文 / (明) 吴承恩著; 安义运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70-9

I. 西… II. ①吴…②安… III. 章回小说—中国—明代—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92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80 年 5 月
第 2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26회 손오공은 세 섬을 찾아다니며 처방을 구하고
관세음은 감로수를 뿌려 인삼나무를 살려내다 /1
- 제 27회 백골정은 당삼장을 세차례 놀려먹고
당나라 성승은 분김에 오공을 내쫓다 /19
- 제 28회 화괴산에서 요괴들은 다시금 한데 모이고
흑송림에서 삼장은 마귀에게 맞다들리다 /37
- 제 29회 삼장은 재난에서 벗어나 보상국에 이르고
팔계는 은혜를 입어 흑송림을 찾아가다 /51
- 제 30회 사악한 마귀는 정법을 침범하고
의로운 백마는 오공을 생각하다 /66
- 제 31회 저팔계는 의리로 미후왕을 분발시키고
손행자는 지혜로 황포괴를 굴복시키다 /84
- 제 32회 평정산(平頂山)에서 공조(功曹)는 소식을 전해주고
련화동(蓮花洞)에서 목모(木母)는 재난을 당하다 /104
- 제 33회 외도(外道)는 진성(真性)을 매혹하고
원신(元神)은 본심(本心)을 도와주다 /123
- 제 34회 마왕의 계책에 미후왕은 곤경에 빠지고
오공은 수단을 써서 보물을 빼앗아내다 /142
- 제 35회 외도가 위세를 부려 정성(正性)을 기롱하고
오공은 보배를 얻어 요괴를 굴복시키다 /162
- 제 36회 오공의 바른 처사에 다들 심복하고
외도는 깨어져 광명을 보게 되다 /178
- 제 37회 귀왕은 밤중에 나타나 당승을 배알하고
오공은 둔갑을 하여 태자를 이끌어오다 /199

- 제 38회 태자는 모후에게 물어 가짜왕을 알아내고
오공은 저팔계를 시켜 진짜왕을 업어내다 /218
- 제 39회 오공은 하늘에 올라가 금단을 얻어오고
죽었던 국왕은 삼년만에 되살아나다 /236
- 제 40회 홍해아는 삼장을 회롱하여 선심을 흐리우고
세 형제와 백마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다 /257
- 제 41회 오공은 불을 만나 싸움에서 지고
팔계는 요괴에게 사로잡히다 /275
- 제 42회 오공은 은근히 남해보살을 배알하고
보살은 자비심을 베풀어 홍해아를 잡다 /294
- 제 43회 흑수하의 요괴는 당삼장을 채여가고
서해바다 룡자는 자라요정을 잡아가다 /315
- 제 44회 삼장네 일행은 수레 끄는 중들을 만나고
정직한 오공은 산기슭 피난소를 지나다 /335
- 제 45회 삼청관에서 손대성은 이름을 남기고
차지국에서 미후왕은 신통력을 부리다 /354
- 제 46회 도사는 제힘만 믿고 정법을 업신여기고
오공은 신통력을 부려 요괴들을 없애치우다 /373
- 제 47회 삼장은 밤중에 통천하에 길이 막히고
오공은 자비롭게 동남동녀를 구출하다 /393
- 제 48회 요괴는 찬바람 일으켜 큰눈을 퍼붓고
삼장은 서천길 못 잊어 빙판을 지나다 /413
- 제 49회 삼장은 조난을 당하여 수부에 갇히고
관음은 재난을 구원하려 어람(魚籃)을 들고 현신하다 /430
- 제 50회 물욕에 눈이 멀어 부질없이 날뛰고
어리석게 마음이 흐려 요괴와 맞다들다 /450

제 26 회

손오공은 세 섬을 찾아다니며 처방을 구하고
관세음은 감로수를 뿌려 인삼나무를 살려내다

시에 이르기를—

세상살이엔 참을성을 길러야 하고
몸을 닦음엔 인내심이 있어야 하리
흔히는 인(刃)¹⁾자를 생계로 삼기 마련이니
생각을 거둬서 노역을 삼가하라
상사의 너그러움 영원히 전해지고
성인의 은혜로움 당세에 이어지다
굳센자우에 더욱 굳센자 있다지만
필경엔 헛됨과 그릇됨으로 끝나리.

진원대선은 손으로 오공을 붙잡아일으켰다.

“나는 네 숨씨를 알고있거니와 네 명성도 들어 알고있다. 그렇지만 이번 일만은 도리에 어긋나거니와 사람을 속여먹은 덜된짓이다. 설령 네가 재간껏 행패를 부린다 해도 결국 내 손에서 빠져나가진 못할것이다. 그리고 난 너와 함께 서천에 가서 너의 불조를 만나서라도 나의 인삼나무를 물어내도록 하고야말테다. 그러니 넌 부질없이 까불지 말도록 해라.”

하지만 오공은 오공대로 깔깔거리었다.

1) 인: 칼날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날카롭게 맞섬을 의미한것이다.

“당신도 퍼그나 좁쌀이군요. 나무를 되살리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일찌감치 이렇게 말했더라면 부질없는 실랑이질은 없었을 게 아니요?”

“이만한 실랑이질도 없이 내가 어떻게 너를 호락호락 용서해줄수가 있겠느냐?”

“그럼 당신은 우리 스승님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는 당신의 나무를 살려주기로 하는게 어떻겠소?”

“네가 만일 그런 신통력이 있어서 내 나무를 살려놓는다면 난 너와 형제의 의를 맺도록 하마.”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 우선 저분들을 풀어놓아요. 난 틀림없이 나무를 살려놓을테니까.”

대선은 오공이 더는 도망치지 않을것을 짐작하고 삼장과 팔계와 오정의 결박을 풀어주게 했다.

“스승님, 사형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있는지 모르겠군요.”

오정의 이런 말에 팔계가 앞질러 빈정거렸다.

“꿍꿍인 무슨 꿍꿍이겠어? 저런걸 입에 발린 인정이라고 하는거야. 죽은 나무를 제가 무슨 수로 살려낸다는거람? 그럴듯한 말로 속여가지고는 그것을 핑계 삼아 자기 혼자 뺑소니치려는거지. 우리 같은걸 돌볼사이가 어데 있어?”

그러자 삼장이 옆에서 한마디 하였다.

“제가 우릴 내버리고 가진 못할거다. 어디 그 내막이나 물어보자꾸나.”

그리고는 오공을 가까이 불렀다.

“오공아, 너는 왜 도사를 속여서 우리를 풀어놓게 한거냐?”

“제가 왜 도사를 속이겠습니까? 그건 정말입니다.”

“그래 넌 어디로 가서 그런 처방을 구할 생각이냐?”

“좋은 처방은 바다저쪽에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제부터 동양대해로 가서 삼도십주를 다 돌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오랜 신선들과 성인들을 찾아 소생법을 알아올텐니다. 그래서 죽은 인삼나무를 꼭 살려내고야말겠어요.”

“이렇게 떠나면 언제쯤 돌아올수 있겠느냐?”

“사흘 동안이면 넉넉히 돌아올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네 말대로 사흘 동안의 말미를 주마. 그래서 사흘안에 돌아오면 좋지만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난 또 ‘긴고주’를 외울테다.”

“알겠습니다.”

오공은 급히 호피치마를 추슬러입고 문밖으로 나오더니 대선에게 말했다.

“내 곧 다녀올테니 도사께선 안심하시오. 그 대신 우리 스승님을 잘 접대해주시기 바라오. 날마다 제때에 밥상을 차려드려야지 한끼라도 걸렀다간 이 오공이 돌아와 당신과 해낼테요. 먼저 가마밑부터 마사 놓을테란 말이요. 스승님의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입히고 스승님의 신상을 잘 보살펴드리오. 스승님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여위었거나 병색이 돌았다간 내가 용서치 않을테요.”

“잔소리 그만하고 어서 다녀오거나 해라. 밥은 굶기지 않을테니까.”

대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오공은 벌써 근두운을 잡아타고 오장관을 떠나 동양대해로 날아갔다. 하늘을 나는 오공은 빠르기가 번개 같고 급하기가 별찌 같았다. 어느덧 봉래산선경에 이르러 구름을 낮추고보니 실로 훌륭하기 이를데 없었다.

신선의 고향이라 성인들 무리져있고

검푸른 파도위에 봉래산이 솟아있는데

요대의 질은 그림자 하늘에 차거웁고

거각의 눈부신 빛발 물위에 높도다

오색의 안개와 노을 옥통소 물었는가

구중천의 별과 달은 금거북 비치는듯

요지의 서왕모도 빈번히 이곳을 찾아

세 신선 축하하여 선도를 내놓았더라.

봉래산에 내려선 오공이 길을 찾아 걸어가노라니 백운동어구의 소나무그늘아래에 세 로인이 바둑을 두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옆에서 구경하고있는것은 수성(壽星)이요, 마주앉아 승부를 겨루고있는것은 복성(福星)과 록성(祿星)이었다.

오공은 그들의 앞으로 다가가 소리를 쳤다.

“여러분, 안녕들 하시오?”

세 성신들은 오공을 보자 얼른 바둑판을 밀어놓고 답례를 했다.

“대성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소?”

“당신들과 한번 놀아볼가 해서 찾아왔소.”

수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듣자니까 대성께선 도가를 버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면서요? 그래서 당나라 중을 보호하여 천축으로 경을 가지러 가는 길이라지요? 그러니 날마다 산길을 걷기만 해도 빠르할텐데 어떻게 한가히 놀러 다닐 틈이 다 있으시겠소?”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오공이 천축으로 가던 길에 한가지 말썽거리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볼가 해서 찾아온거요.”

오공의 실토에 복성이 다그쳐 물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릴수 있는 한 힘껏 도와드리지요.”

“다른게 아니라 저 만수산의 오장관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그만 발목을 잡히고말았소.”

그 말에 세 성신은 다같이 놀랐다.

“오장관이라면 진원대선의 선궁이 아니요? 혹시 인삼과라도 훔쳐 자신게 아니요?”

오공은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훔쳐먹었던들 그게 몇푼어치나 되겠소?”

“원, 귀공은 역시 원숭이족속이라 할수 없나보군요. 그 과일은 ‘만수초환단(万寿草还丹)’이라고 하는데 냄새만 맡아도 삼백 육십년을 살수가 있고 한개 먹기만 하면 사만 칠천년은 문제없이 살수가 있는 보물이요. 우리의 도술은 대선에게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있단 말이요. 대선은 그것을 쉽게 손에 넣어 하느님과 수명을 같이하고있지만 우리는 정기를 기르고 룡호를 조화시켜야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오. 그런데도 귀공은 그것을 몇푼어치도 안된다고 하는거요? 그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령근(灵根)이란 말이요!”

“령근? 하하하! 난 벌써 그 령근을 아예 근절시키고말았는걸!”

세 성신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걸 어떻게!”

“이틀전에 우리가 오장관에 이르러보니 대선은 집에 없고 두 동자만 남아서 우리 스승님을 접대하는데 그들은 인삼과 두개를 따다가 스승님한테 권하는거였소. 그런데 우리 스승님은 그것을 태어난지 사흘밖에 안되는 어린애라고 하면서 한사코 자시려 하질 않는단 말이요. 결국 인삼과는 두 동자가 가져다 먹어치우고 우리한테는 보이지도 않는거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세개를 훔쳐다가 우리 세 형제가 하나씩 나눠먹었더니 두 동자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지고는 펄펄 뛰면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붓는거였소. 나는 그 욕설을 듣다못해 결김에 아예 그 인삼나무를 뿌리채 넘어뜨리고말았소. 그랬더니 열매는 없어지고 잎은 떨어져버리고 가지와 줄기는 시들어 죽어버렸단 말이요. 나중에 동자들이 피를 써서 우리를 방안에 가두어놓았지만 우리는 내가 술법을 써서 문을 열고 밤도와 줄행랑을 놓았소. 그랬던건데 다음날 대선이 뒤쫓아오질 않았겠소? 서로 오가는 말이 불손하여 싸움이 붙었던거지만 대선은 소매를 펼치더니 어렵지 않게 우리를 소매안에 다 말아넣는거였소. 결국 우리는 오장관으로 끌려와 기둥에 묶인채 하루종일 매를 맞았소. 밤이 되자 우리는 또 도망을 쳤고 대선은 다음날 또 뒤쫓아왔소. 우리 세 형제는 제각기 손에 무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대선은 먼지털개 하나만 손에 들고 어렵지 않게 우리를 막아내는거였소. 결국 또 그의 소매안에 휘말려 끌려오고말았는데 이번에 그는 우리 스승님과 두 동생에게는 무명을 감아 옷칠을 하고 나만은 기름가마에 튀길 잡도리였소. 그런걸 내가 탈신법을 써서 빠져나와 기름가마를 깨뜨려놓았더니 그도 나를 더는 어쩔수 없었던지 얼마간 겁을 낸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의논을 붙여 나의 스승님과 두 동생을 풀어내주면 나는 죽은 나무를 살려놓겠노라고 약속을 했던거요. 그런데 문득 ‘좋은 처방은 바다저쪽에서 온다’는 말이 생각나기로 나는 일체를 불문하고 이렇게 세분을 찾아오게 된거요. 그러니 죽은 나무를 되살릴수 있는 처방이 있거든 내게 좀 알려주요. 당나라중을 구해내는 일이 내게는 무엇보다 급선무란 말이요.”

세 성신은 듣고나서 저마다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원숭이족속이라 전혀 상대를 몰라보는군. 그 진원자는 지선(地仙)의 조상이고 우리는 신선의 선조란 말이요. 귀공이 비록 천선으로는 되었다 하지만 역시 태을산수(太乙散數)에 불과하고 진류에

는 들어서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의 손에서 벗어날수 있겠소? 만일 귀공이 야수나 날짐승, 벌레나 고기파위를 죽였다면 우리한테 있는 서미단약(黍米之丹)으로 얼마든지 살려낼수 있지만 그 인삼나무만은 선향의 뿌리라 도저히 살려낼수가 없소. 미안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처방이 없구려.”

오공은 그 소리를 듣더니 이마살을 잔뜩 찌프렸다. 복성이 그것을 보고 위로의 말을 했다.

“손대성, 우리 이곳에 그런 처방이 없다 하여 설마 다른 곳에도 없겠소? 무엇때문에 그토록 걱정만 하시는지요?”

“이곳에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보는건 어렵지 않은 일ियो. 사대부주와 삼십륙천을 다 돌아다닌대도 이 오공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터이니까. 다만 나의 스승님은 법도가 엄격하고 도량이 좁아놔서 내게 사흘 동안의 말미밖에 주지 않았단 말ियो. 만일 사흘안에 내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 그는 곧 ‘긴고주’를 외워서 나를 혼내주겠다는거였소.”

오공의 말에 세 성신은 하하하 소리내여 웃었다.

“그것 참 묘한 방법이구려! 그렇게라도 단속하지 않았단간 귀공이 또 천궁을 소란시키게 될게 아니요?”

그리고는 수성이 점잖게 오공을 안심시켰다.

“대성은 걱정하실것 없소. 진원대선이 비록 우리의 선배라고는 하지만 우리와도 안면이 있는 처지요. 그동안 오래도록 서로 만나보지 못한터이라 한번 찾아가 문안도 할겸 대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드리지. 그리고 이쪽의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귀공의 스승으로 하여금 ‘긴고주’를 외우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소. 사흘도 좋고 닷새도 좋으니 우린 귀공이 처방을 얻어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있다가 돌아오면 될게 아니요?”

“그건 정말 고마운 말씀이구려! 부디 세분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오. 그럼 난 가봐야겠소.”

오공은 곧 세 성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한편 세 성신은 상서로운 빛을 타고 곧추 오장관으로 날아갔다. 오장관에 있던 도인들은 난데없는 두루미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쳐들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세 성신들이 다가오고있지 않은가!

선동 하나가 그것을 보고 급히 대선에게 아뢰었다.

“대선님! 바다의 세 성신께서 오십니다.”

삼장들과 한담을 하고있던 대선은 그 소리를 듣고 곧 일어나 섬돌아래까지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수성을 알아본 팔계는 앞으로 나서며 수성의 소매를 거머잡았다.

“아니, 이 비계덩이 같은 늙다리가 오래동안 못 봤더니 제법 때물이 벗었는걸! 그런데 왜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거야?”

그리고는 자기의 승모를 벗어서 수성의 머리에 씌워놓더니 손벽을 치가며 좋아라고 웃어댔다.

“하하하, 됐어! 아주 제격인걸! 이거야말로 ‘사모 쓰고 록 받는것’이지 뭐야!”

수성은 승모를 벗어던지며 팔계에게 눈을 흘기었다.

“에끼, 무엄한 녀석 같으니! 그만한 나이에 이상사람도 몰라보느냐?”

“내가 무엄한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꼭 어느 집 하인녀석들 같기에 하는 말이요.”

이번엔 복성이 한마디 꾸짖었다.

“네놈은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굴 하인이니 무어니 하는거냐?”

팔계는 여전히 늘어진 태도로 느물거리었다.

“그래 남의집 하인이 아니라면 어째서 하인들의 이름을 따다가 ‘침수’니 ‘침복’이니 ‘침록’이니 하는거요?”

삼장은 팔계를 꾸짖어 물리치고 황급히 의관을 갖추어 세 성신들에게 절을 했다. 성신들도 대선을 향해 후배로서의례를 올렸다. 그리고나서 모두들 자리에 앉자 록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오래동안 존안을 찾아뵙지 못하고 문안조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손대성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대선님의 선산을 소란시켰다기로 저희들도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만...”

“손행자가 봉래로 갔더라니 말이요?”

“네. 대선님의 인삼과나무를 넘어뜨렸기때문에 그것을 되살려낼 처방을 구하려고 왔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처방이 없는것을 알고는 다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만 그는 사흘 동안의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당나라 성승이 ‘긴고주’를 외우게 된다면서 무척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님께 문안을 드릴겸 삼장한테도 그 기한을 늦추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삼장은 수성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절대로 외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한창 그러고있는데 팔계가 또 안으로 뛰어들더니 복성에게 매달리며 과일을 달라고 보채었다. 그는 복성의 소매안과 허리춤을 마구 뒤지고 주물고 하는것이였다. 삼장은 그것을 보고 가볍게 꾸짖었다.

“팔계야,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이건 버르장머리가 아니라 ‘번지는것마다 복이라’는겁니다.” 삼장은 참다못해 큰소리로 팔계를 물리쳤다.

팔계는 마지못해 물리는 가면서도 복성을 향해 눈을 흘겼다. 그러자 복성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놈아! 난 네게 잘못된 일도 없는데 어쩔다구 눈을 흘기는거냐?”

“이건 당신을 흘기는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 복을 바라본다’는거요.”

그러면서 문을 나서던 팔계는 소동 하나가 순가락 네개를 들고 차종을 가지러 가는것을 보고는 달려가 소동의 손에서 순가락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전각에 올라가 자그마한 경쇠를 집어들고 마구 두드리며 놀아댔다.

이번에는 대선이 한마디 꾸짖었다.

“너 이 화상이 점점 더 체신머리없이 놀아나는구나!”

그러나 팔계는 여전히 빙글거리기만 하였다.

“이건 체신머리가 없는게 아니라 ‘사시장철 평화롭고 경사스럽다’는겁니다.”

팔계의 터무니없는 장난에 대해서는 잠시 덮어두기로 하고 이야기는 다시 오공에게로 넘어간다.

붕래선경을 떠난 오공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방장전

산에 이르렀다. 구름우에 서서 아래를 굽어보니

아아할손 방장손은 태원궁의 선산이요

신선들이 모인다는 별유천지 여기로다

자금대의 밝은 빛발 삼청길에 비쳐지고

꽃나무의 짙은 향기 안개인양 자욱한데
 예각안엔 구석구석 봉선화가 피어있고
 령지발엔 누구인가 옥거름을 내었어라
 울복송아 주렁주렁 오얏열매 붉게 익어
 새로 오는 신선님도 일만년은 살리로다.

구름에서 내려선 오공은 경치를 바라볼념도 없이 걸음을 다그쳤다. 문득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공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저쪽으로부터 신선 한분이 다가오고있었다.

온 하늘에 노을빛이 붉게 물들고
 오색안개 서서히 피어오르는데
 단봉이련꽃송이 입에 물어 돋보이고
 청란이 너울너울 춤을 추어 아릿답도다
 수복은 바다같이 넓고 산같이 높아
 소동 같은 모습에 풍채 또한 릉름한데
 손에는 불로단을 호로박에 담아들고
 허리엔 장생전을 길게 드리웠네
 인간세상에 복을 내리기 그 몇번이며
 홍진세계의 액운을 막아주기 몇차례이던가
 무제의 부름 받아 수복을 늘이었고
 서왕모의 반도회엔 빠짐없이 다녀갔었네
 불제자들 감화시켜 속세의 인연을 끊게 하고
 넓은 길 가리키여 앞길을 밝혀주었고
 바다너머 신선들과 래왕도 하고
 령산 찾아 부처님도 배알했거니
 신선계의 제일 권속
 그 이름도 거룩하여 동화대제군이라네.
 오공은 맞받아나아가 큰소리를 쳤다.
 “제군님, 인사드립니다!”
 제군은 황급히 답례를 했다.

“손대성, 미처 마중을 나가지 못해 미안하게 됐소.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 차라도 들시다.”

그리고는 오공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안내하는데 보니 패궐선궁과 요지경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주객이 자리를 잡고 앉자 푸른 병풍뒤로부터 소동 하나가 나타났다. 그 소동의 모습을 볼것 같으면-

도복 입은 몸에는 노을이 비졌고
머리엔 칠성두건 발에는 짚신
공덕 이뤄 자유로운 몸이 되어
근본을 알아본 주인님 덕분에
갑자없이 살아가니 장생불로라
그 누가 천궁반도 세번 흠쳤나
병풍 돌아 나오느니 동방삭(東方朔)일세.

오공은 소동을 보더니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아니요 줌도적녀석이 여기 와있었구나! 제군님한테도 네가 흠쳐먹을 반도가 있었더냐?”

동방삭은 먼저 제군에게례를 올리고나서 오공을 향해 대꾸했다.

“너 이 능구렁이도적놈아! 여기는 무얼하러 온거냐? 우리 스승님한테는 네가 흠쳐먹을 선단 같은건 없어.”

제군이 목소리를 높여 제지시켰다.

“만천(曼倩)아, 쓸데없는 소린 그만두고 어서 차나 내오너라.”

만천이란 동방삭의 도호였다. 동방삭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 차를 내왔다. 차를 마시고나자 오공은 제군을 향해 입을 열었다.

“실은 제군님께 한가지 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만...”

“어떤 일인데? 어서 말씀해보구려.”

“며칠전에 제가 당승을 보호하여 서천길을 가던중에 만수산의 오장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소동녀석들이 어떻게 못되게 구는지 제가 화김에 그만 남의 인삼나무를 쳐넘기고말았습니다. 그때문에 당승은 지금 불모로 붙잡혀있는중입니다. 바라옵건대 제군님께 죽은 나무를 살려낼수 있는 처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원숭이가 지금도 어데 가나 사단만 일으키고있구만. 그 오장관의 진원자는 호를 여세동군(與世同君)이라고 하는 지선의 선조인데 어떻게 그분을 다 노엽힌지요? 그분의 인삼나무는 다름아닌 초환단이란 보물이요. 귀공이 그것을 훔쳐먹은것만 해도 죄가 되는데 아예 나무까지 넘어뜨렸으니 그가 어떻게 가만있을수 있겠소?”

“옳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린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 그는 우리를 인형다루듯하면서 소매안에 휘말아넣더군요. 그러니까 더욱 화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는수없이 나무를 도로 살려내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처방을 찾아나선겁니다.”

“내게는 ‘구전태을환단(九轉太乙還丹)’이란것이 있어서 천지간의 모든 생명은 다 살려낼수 있지만 그 인삼나무만은 살리지 못하오. 나무란 수토의령물이어서 하늘과 땅이 적셔주고 길러주는거지요. 하계의 여느 과일나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만수산이란 곳은 선천의 복지이고 오장관은 하주의 동천인데다 인삼과는 천지개벽때에 생겨난령근이니 그걸 어떻게 고쳐낼수 있겠소?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 처방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만큼 실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제군이 좀 더 앉았다가 옥즙 한잔을 마시고 가라고 했지만 오공은 굳이 사양했다.

“나무를 살려낼 일이 급하여 더 머물고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말을 마친 오공은 또다시 구름을 날려 이번에는 영주(瀛洲)의 바다섬에 이르렀다. 이곳 역시 신선의 복지라 그것을 보면-

구슬나무 령릉하고 자주구름 아롱진데

영주궁궐 우줄우줄 푸른 하늘 이고섰네

청산록수 그림 같고 기화요초 눈부신데

들쭉날쭉 솟은 바위 곤오보검 세워진듯

금빛수탉 울어예며 바다세월 알려주고

천년봉황 입을 벌려 붉은 연기 들이키네

세인들이 탐을 내는 호중경치 여기로세

초연할손 봄날풍경 억만년을 번치 않네

오공이 구름을 낮추어 영주땅에 내려서니 붉은빛 비랑우에 구슬

나무가 서있고 그 나무아래에 얼굴은 어린아이같이 불깃불깃하고 머리는 학처럼 하얗게 센 신선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술잔을 기울이며 흥겹게 담소를 하고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홉이나 되는 신선들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오공은 일부러 큰소리로 웨쳤다.

“자, 나도 한몫 끼여봅시다!” 신선들은 오공인것을 알아보고 얼른 일어나 영접을 했다. 오공은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모두들 아주 자유로우시군요!” “대성도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천궁을 소란시키지만 앓았더라도 지금쯤은 우리보다도 더 자유롭게 지내실수가 있었을거요. 어쨌거나 지금은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을 배알하러 서천으로 가신다니 참으로 장한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틈을 내여 여기까지 다 오신거요?” 아홉 신선들의 말에 오공은 그동안의 경위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홉 신선들은 모두 눈을 둥그렇게 떴다.

“대성은 심보가 비뚤어져서 사단을 일으키지 않고는 못 견디나보군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처방이 없는걸요.”

“그런 처방이 없다면 난 또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아홉 신선들은 오공을 만류하여 선가에서 마시는 옥빛 선즙과 푸른 연뿌리를 내여다 권했다. 오공은 선채로 선즙을 한모금 마시고 연뿌리를 한조각 먹고나서 총총히 영주를 떠나 동양대해로 떠나갔다.

어느덧 락가산이 눈에 안겨들자 오공은 곧 구름을 낮추어 보타암에 내려섰다.

때마침 관음보살은 자죽림속에서 여러 천신들과 목차와 퉁녀들에게 경문을 가르치고있었다. 그것은 실로—

바다섬에 상서로운 기운이 짙어
신비로운 일들이 많고 많아라
간단한 말속에 깊은 뜻 들어있고
희미한 가운데 절품이 생겨나거니
사성¹⁾을 전하여 정과를 이루고

육범²⁾을 듣고서 울타리 벗어나네